

뉴스와 쟁점 | News & Issue

브라질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불거진 정치개혁 요구 목소리

양은미

지금도 진행 중인 브라질 주요 도시 및 해외 브라질 커뮤니티의 시위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시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고, 시위의 규모, 지속기간, 사회적 반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브라질에는 독립 이후 해결되지 않은 식민 잔재를 본질로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이후에도 사회 문제로 고통 받는 그룹들은 크고 작은 규모의 저항을 통해 브라질 사회에 문제의식을 꾸준히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사회 운동의 주체는 물론이고 운동의 성과 역시도 특정 그룹에 국한되어,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한 예로는 ‘흑인 의식의 날’과 흑인 운동과 같은 인종적 성격의 운동을 비롯해, 무토지농민운동 및 무주택자 운동, 대학생이나 노조가 중심이 된 파업·점거 형태의 저항이 있다. 최근까지도 정치인의 부패 문제와 교육과 공공서비스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비난에 그치거나, 언론에서조차 다른 소식으로 국민의 이목을 돌림으로써 부패 스캔들을 잠식시키기에 급급했다. 따라서 그간에 드러난 사회 문제 역시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있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갈 듯 보였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발생한 시위는 마치 땀속에 절은 스펀지를 움켜쥐자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간 브라질 지배층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제반 문제가 여기저기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시위 물결의 촉발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었다. 그러나 공공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가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 주요 브라질 커뮤니티의¹⁾ 강도 높은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는 소셜 네트워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의 발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근 3주간 외신을 타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이번 대규모 시위가 돌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 요금 및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는 2012년 8월 리우 그란지 두 노르치 주의 나타우 시에서 발생한 바

1) 이번 시위는 국내 438개, 해외 27개 이상의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있으나 동년 9월 초 요금 인상을 철회하며 수그러들었다. 2013년 3월에도 동일한 이유로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시청 앞에 모여 버스 요금 인상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발생한 이번 시위가 전국적 성격이 된 것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자타가 평화 시위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 및 소수 시위자의 상점 약탈이나 정부 건물 훼손 등은 평화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시위가 브라질 주요 도시는 물론 해외 브라질 커뮤니티로까지 확산되면서 소셜 네트워크의 균중동원능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저항의 이유 혹은 목표

대중교통의 무료 운행 이슈로 시작된 저항 운동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요금 인상 철회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그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해외 네티즌의 지지와 함께 브라질 국경을 너머로까지 확산된 것은 국민의 불만이 비단 대중교통 요금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대다수 브라질 국민은 이를 표출할 계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은 브라질 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브라질의 대중교통 요금과 대도시 물가는 북유럽 선진국 수준에 이른 데 반해, 정작 공교육과 보건시스템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부문은 선진국의 문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듯 열악한 서비스와 정책의 비효율성, 낮은 정치적 투명성과 개방성, 지긋지긋한 부패 스캔들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이른 것이다.



“아직도 겨우 20센트 때문에 이 시위를 벌인 걸로 생각하는가?” 월드컵 예산, 올림픽 예산, 부패, 최저임금 수치를 제시하며 저항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992년 콜로르 대통령의 탄핵을 낳게 한 국민 결집 이후 이례적인 이번 상황을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각국의 언론보도를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지만, 그 요지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은 이번 시위가 월드컵에 미칠 파장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시위 물결은 ‘축구에 광적인 정도로 열정을 보이는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며 월드컵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느낄 불안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디언』지는 ‘브라질 정치가 이번 시위를 부를 만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직접적이고 단순 명쾌하게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보인 독일 언론의 반응이 흥미롭다. ‘고마워요 브라질!’(Danke, Brasilien!)은 지난 토요일 독일의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디 차이트』의 오피니언 란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브라질 국민이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증거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국제축구연맹(FIFA)에 중요한 교훈을 시사함으로써 전 세계에 매우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전하며, 국제축구연맹의 독단적 일처리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시위가 어느 정도 수그러진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브라질 정부의 반응이다.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지우마 대통령이 성난 시위자들을 향해 ‘내가 듣겠다’라며 시위의 원인에 공감을 표시하고 대화를 제안한 것은 최근 인도, 터키, 불가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시위와 비교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시위가 시작되고 12일이나 지난 후에야 보여 준 그 같은 겸손한 태도가 다소 때늦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들린다. 지우마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의료 및 교육서비스 질 개선 의지를 천명했지만 연설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무책임하고 공허하다는 회의적인 관점이 팽배하고 있다. 그 동안 끝만 번지르르한 정치인의 연설에 신물이 난 브라질 국민은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듯,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형태의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하에 구체적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고 날로 새로운 시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훨씬 포괄적이고 뚜렷해지면서 이번 시위는 자연스럽게 ‘반정부시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왜 룰라 정권이 아닌 지우마 정권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룰라에 비해 지우마의 카리스마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리는, 매우 편협한 해석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견해는 이번 시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대중을 감정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담은 시위 포스터

적 으로 선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브라질 정부의 부패 및 무책임한 태도, 비효율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시위에서 시위대들의 요구사항은 아직까지는 현 정권의 퇴진보다는(그러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과연 포화 상태에 이른 불만족은 어디로 흐를 것인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시위를 정점으로 이번 저항 운동이 한 때 방향을 잃은 듯 보이면서 사이버액티비즘 성격을 지닌 시위의 리더십 부재와 구체적 목표 및 응집력 부족이 거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위의 성과는 제법 구체적이고도 유의미해 보인다. 우선 ‘들리는가? 우리 말을 들어라!’가 이 시위가 이루고자 한 최소한의 목표였다면, 표면적으로나마 그 목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듯하다. 실제 시위대의 압력으로 부패 사건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법안 PEC 37이²⁾ 의회에서 폐기되었고, 지우마 대통령은 이르면 브라질 독립 기념일인 9월 7일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미 대중교통, 정치 개혁 및 반부패법, 의료, 교육,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연방·지방 정부의 재정 협력과 같은 5개의 합의안을 채택한 것도 성과 중 하나다.

지우마 대통령 담화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은,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의 대화를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또 시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되었으나 앞으로 이어질 저항의 목소리와 활동은 사이버 공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시위의 당사자들이 그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확보한 여러 성과 또한 이번 시위가 이제 사이버 단계를 벗어나 실제 공간으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불거진 브라질 사회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너무 쉽게 낙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대적 시위가 시작된 지 근 한 달이 지난 지금 —작년과 올 초의 같은 취지의 시위를 제외하고도— 이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고무적인 신호로 보인다.

양은미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 헌법개정안 37/2011의 약자로, 범죄 수사에 있어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에 이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25일 투표 결과 반대표 430, 찬성표 9, 기권표 2로 거부되었다.